

작품에는 거미를 잡다가 나중에는 철사처럼 굳어지는 게 습관이다.

- 중국 4당

다음은 1980년에 어느 일간지에 실린 도리스라는 젊은 여성의 인터뷰 내용이다.

도리스 : 마약을 하기 시작한 이래로 전 '마약 중독'에 관한 책을 수도 없이 찾아봤어요. 제 어린 시절은 모든 마약 중독자들의 전형적인 유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두 살 때 돌아가셨고, 이후로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죠. 여덟 살 때는 놀이터에 갔다가 난생 처음으로 성폭행을 당했어요. 열두 살 때는 친구 집에 놀러가려고 낯선 사람의 차를 얻어다가 운전자에게 성폭행을 당했구요. 그전 경우처럼 심하게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처럼 끔찍하지는 않았어요. 요즘은 여자에 눈이 먼 남자들에게서 돈이라도 뜯어내지요. 뒤늦은 복수라고나 할까요.

취재기자 : 성매매를 하나요?

도리스 : 아니요. 그 정도로 타락한 건 아니에요. 돈 많은 남자들을 몇 명 알고 있거든요. 가끔가다 한 번씩 즐기게 해주고 돈을 받아요.

취재기자 : 즐긴다고요?

도리스 : 뭐, 예전대 어떤 농부는 제가 밭가벗은 채 밭 등에 올라타 노는 걸 보며 좋아하거든요. 어떤 사업가는 제게 아랫도리를 벗고 다리를 탁자 위에 올라라고 시키죠. 그 남자한테는 그게 최고의 즐김거리죠. 이 사람들에게서는 한 번 만날 때마다 500마르크씩 받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 말고 평범한 남자들도 있죠.

취재기자 : 그 돈이면 매일 필요한 마약을 사는 데 충분하나요?

도리스 : 충분하진 않아요. 요즘은 모르핀을 살 형편이 안 돼서 헤로인을 맞고 있어요. 매일 2그램의 헤로인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600마르크가 들거든요.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가끔은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장사도 하고, 누드사진도 찍어서 돈을 벌어요. 가끔은 한스가 가져오는 걸 나눠 맞을 때도 있고요.

취재기자 : 한스는 누구죠?

도리스 : 남자친구요. 2주일 전부터 동거하고 있어요. 한스는 이것저것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해시시(hashish) 밀매도 해요. 그 수입으로 둘이서 먹고살기에 충분하고도 남죠.

취재기자 : 언제부터 마약을 하기 시작했나요?

도리스 : 열세 살 때부터요. 그때 처음으로 알약을 복용했죠. 세 번 하고 나니 심장이 나더라고요. 알약 색깔도 거기서 거기고, 권장상태도 매년 똑같고, 그 뒤로는 거의 일 년 정도 손도 대지 않았어요.

취재기자 : 모르핀을 맞게 된 동기는 뭐였지요?

도리스: 좀 이상한 사연이 있죠. 그 무렵에 저는 다시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어느 은행 지점장과 재혼했구요. 어느 날 밤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어요. 새아빠가 엄마를 내쫓으려고 했거든요. 저는 새아빠에게 달려들어 아팠더라든 형편 건이겠죠. 그 사람은 엄마를 놓더니 저를 피멍이 들도록 때리더군요. 그런데 엄마는 도리어 그 사람 편을 들지 않았어요? 정말로 실망스러웠죠.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왔고 그 뒤로는 두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쨌거나 그날 저는 곧바로 미약 상담 센터로 달려갔어요. 거기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요. 저는 영영 울면서 너무 힘들어요. 약 한 알만 주세요. 빨리요 라고 애원했죠. 그 사람들은 제 심정을 아주 잘 이해했지만, 당연히 약은 안 주더군요. 대신에 미약 증복자 지교용으로 쓰이는 모르핀 주사를 놓아줬어요. 그 일을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모르핀 때문에 그날은 밤새도록 토했죠. 사람들이 말하던 환상적인 기분은 전혀 느껴지지 않더군요. 토하는 내내 다른 사람들이 대체 왜 이런 걸 맞는지 궁금했을 정도로. 그걸 안아내기 위해 일주일 내내 주사를 맞아왔어요. 그리고 나서야 겨우 느낌이 오더군요. 물론 그때는 꽤도 막도 못하게 증폭된 상태였구요.

취재기자: 어떤 느낌인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도리스: 모르핀을 맞아도 정신은 망망해요. 공부할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학교에도 갈 수 없죠. 사람들도 내게서 별다른 점을 눈치 채지 못해요. 심지어 고민거리들도 칭찬하 의식하고 있고요. 단 하나 다른 점은 고민거리가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불안함이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모르핀이 헤로인보다 효과가 빠르죠. 모

르핀은 맞는 즉시 뇌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거든요.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없이 황홀한 기분이에요.

취재기자: 그때가 열네 살 때였으니 마약을 살 돈이 없지 않았나요?

도리스: 없긴요. 크리스와 동거하면서 모든 게 해결됐죠. 크리스는 저보다 네 살 많았고, 저처럼 모르핀 중독자였어요. 일주일에 두어 번 약국을 텨었어요. 거기면 우리 둘이 쓰고도 남았고, 가끔은 팔 수도 있을 정도였어요. 일 년 반 정도는 모든 게 손조르웠는데, 어느 날 밤 크리스가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르핀 배이스(헤로인의 원료 물질-울긴이)를 취급하는 사람을 도와 마약 밀매를 했어요. 그리고 졸업시험을 치르자마자 인도로 돌아갔죠.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어긋 사람들에게 신분이 낮거든요. 그렇다고 크리스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는 복역하는 동안 마약을 끊었다고요. 어쨌든 인도에서는 모든 게 훨씬 쉬웠어요. 모르핀, 헤로인, 아편, 마리화나……모든 종류의 마약을 싸게 살 수 있었거든요. 돈은 간혹 몇몇 남자들과 잠자리를 하고 받아 해결했어요. 마약밀매를 했더라면 훨씬 더 많이 벌었을 테지만, 마약을 국경 밖으로 가져고 나온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죠…….

인터뷰 전문을 읽는 동안 독자들은 이 젊은 여성이 마약 중독자가 된 데도 그런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교육도, 가정환경도, 미약 상담 센터도 모두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 남자친구, 탐욕스러운 남성들, 인도에서 만난 갖가지 유혹, 이 모두가 그녀의 삶을 망가뜨리는 데 한몫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이 정말 옳은가?

정답은 '그렇다와 아니다이다. 도리스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어머니와 계부의 다음에 휘말린 필요가 있었는가? 마약 상담 센터로 달려가 알약을 달라고 빌었던 게 피치 못할 일이었는가? 모르면 주사의 진짜 효과를 알기 위해 계속 맞았다는 게 말이 되는가? 고등학교 졸업시험까지 무사히 치르고도 굳이 인도까지 남아간 이유는 무엇인가?

불행한 운명이 그녀를 따라다닌 것은 사실이다. 아버지를 일찍 여윈 인도 그리고, 성폭행은 커다란 충격이었음에 틀림없다. 할머니와 어머니, 새아버지와의 생활에 번갈아가며 적응하는 인도 힘들었을 테고, 어머니가 딸보다 배우자에게 열광되어 있음은 깨달았을 때의 실망도 쓰디쓴 것이었다. 하지만 긍정적인 기회가 전혀 없었는가 말이다. 생모는 형편이 되는 즉시 팔을 되찾아왔으며, 마약 상담 센터의 직원들도 그녀를 돕고자 했다.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치를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향후 직업을 가질 가능성도 연려 있었다. 마약을 끊은 남자친구가 그녀에게 본보기 겸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도 있었다.

상황을 살펴보면 최초에는 소녀의 위기(성폭행, 계부)가 견디기 힘든 것이었고, 마약은 그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일 뿐이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을 전후해서는 의미의 부재 상황, 정확히 말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망연자실함이 더 큰 작용을 한 게 아닐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은 상실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각도 좁아진 것이다. 도리스는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이곳 사람들에게 신물이 났다고 해명했지만, 그녀 자신은 어땠는가? 열네 살에 어머니로부터 달아나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그 남자친구만

저 아무렇지 않게 저버리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 사이에는 모르핀 밀매에까지 손을 댔다. 이 모든 행동이 따뜻하고 인간적인가?

도리스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보았을 뿐 주위를 돌아보는 일이라곤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직업을 갖고자 하는 의욕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 인도, 도덕이나 삶의 의미도 그녀의 관심 밖이었다. 자신의 삶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녀가 보이는 냉소에는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최소한의 마음가짐도 깃들어 있지 않다. 도리어 무가치한 것이라도 재미를 위해서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는 증후적인 태도만 보이지 않았는가! 철저한 초기 조건에 굴하지 않도록 그녀를 독려했어야 할 건전한 저항력은 어디로 간 것인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갈망은 또 어디로 갔는가? 그 갈망이 남아 있었다라면 졸업 후에 그녀가 보다 나은 인생 행로와 목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도리스가 읽었다는 수많은 마약 중독 관련 서적들 중에 프랑클의 책은 없었는지,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다.